

「李仁晦墓誌銘」 소개

장병진(연세대학교)

1.

최근 吉林大學의 王連龍과 黃志明이 고구려 유민에 관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文物季刊』 2022年 第2期에 수록된 「唐代高句麗移民《李仁晦墓志》考論」이 그것이다. 「李仁晦墓誌銘」은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인데, 특히 저자가 墓主 李仁晦를 고구려 출신으로 파악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에 국내 학계에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간단한 소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王連龍·黃志明에 따르면, 묘지명은 河南省 洛陽市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관련 정보를 좀 더 조사한 결과, 출토 시기는 2007년으로 확인된다. 아직 유물의 소장처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탁본이 제작되어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 국가도서관과 北京大學 도서관, 浙江大學 도서관에서 탁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kongfz.com”이라는 인터넷 서점에서 탁본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에서는 탁본의 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浙江大學 도서관의 中國歷代墓誌數據庫에서 선본의 탁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탁본의 크기를 통해 보건대, 묘지석은 대략 한 변이 37~38cm, 두께는 7~8cm쯤으로 추정된다. 총 19열에 滿字 19字로 글자를 새겼고, 묘지석의 측면에는 卷草紋을 새겼다. 찬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余孤子’라는 표현을 통해 李仁晦의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탁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부 이형자가 보이지만, 판독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음의 판독문은 王連龍과 黃志明이 제시한 판독문을 참고하고, 탁본 사진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이다.

2. 「李仁晦墓誌銘」 판독문

誌蓋：

大唐故李府君墓志銘

誌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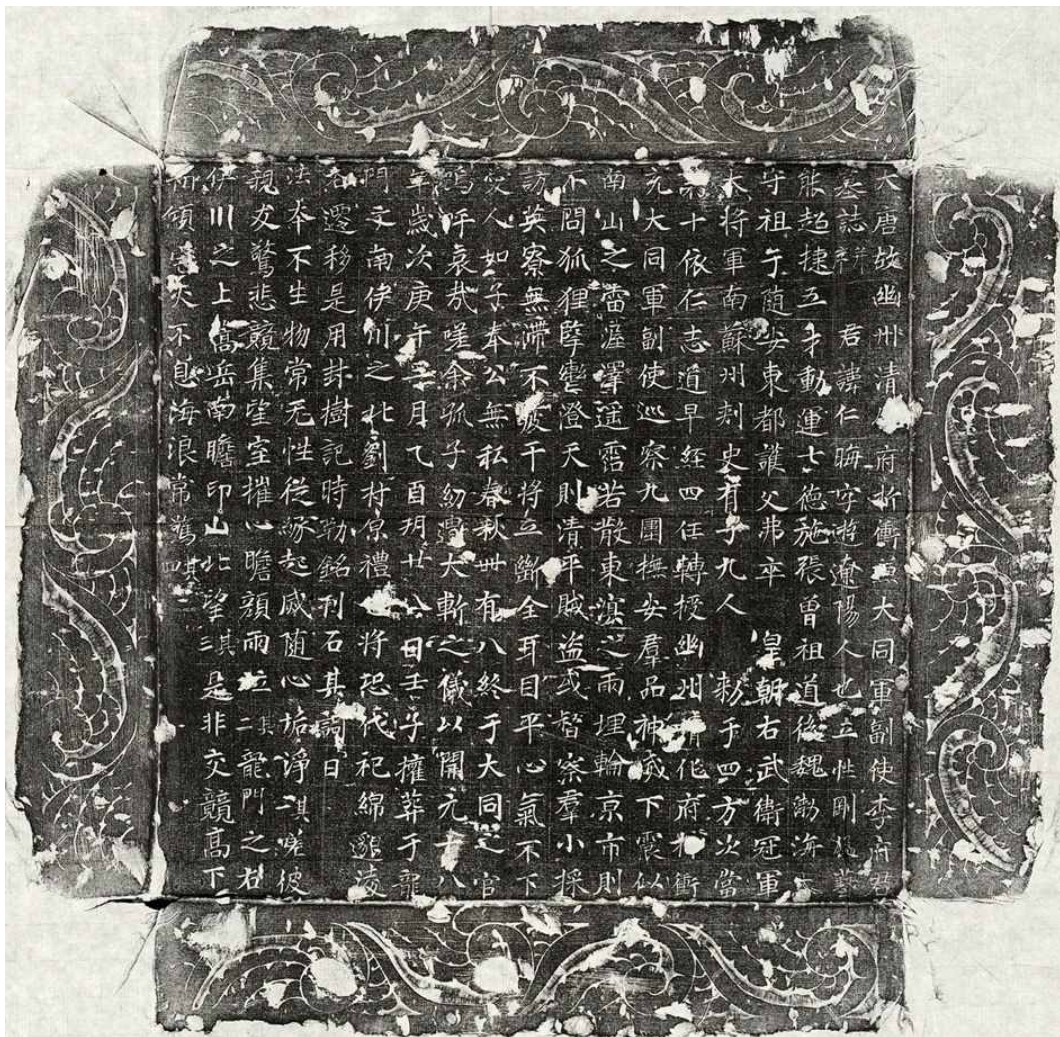
大唐故幽州清化府折衝兼大同軍副使李府君墓誌 并序

君諱仁晦，字遊，遼陽人也。立性剛猛，藝能超捷，五才動運，七德施張。曾祖道，後魏渤海太守。祖于，隨安東都護。父弗卒，皇朝 右武衛冠軍大將軍，南蘇州刺史。有子九人，勅于四方，次

當第十，依仁志道。早經四任，轉授幽州清化府折衝，充大同軍副使，巡察九圍，撫安群品。神威下震，似南山之雷，渥澤遙霑，若散東溟之雨。埋輪京市，則不問狐狸，擊轡澄天，則清平賊盜。或督察群小，採訪英寮，無滯不疲，干將立斷。全耳目平，心氣不下，愛人如子，奉公無私。春秋冊有八，終于大同之官。嗚呼哀哉，嗟余孤子，幼遭大斬之儀，以開元十八年歲次庚午三月乙酉朔廿八日壬子，權葬于龍門之南，伊川之北劉村原，禮也。將恐代祀綿邈，凌谷遷移，是用封樹記時，勒銘刊石。其詞曰：

法本不生，物常无性，從緣起滅，隨心垢淨，其一。嗟彼親友，驚悲競集，望室摧心，瞻顏雨泣，其二。龍門之右，伊川之上，嵩嶽南瞻，邙山北望，其三。是非交競，高下相傾，宅火不息，海浪常驚，其四。

* 탁본 사진 :



(浙江大學圖書館古籍碑帖研究與保護中心 中國歷代墓誌數據庫, ZUL-LY02-1100)

3.

王連龍·黃志明은 묘주 李仁晦를 高句麗 遺民(移民)이자, 樂浪 李氏라고 파악했다. 그런데 묘지명을 통해서만 묘주와 묘주 가문이 고구려 출신이라고 파악할만한 직접적인 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간단하게나마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묘주의 이름은 李仁晦이고, 字는 遊이며, 遼陽人이라고 하였다. 王連龍·黃志明的 논고에서도 지적인 것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에서 그 貫鄉을 ‘遼陽’이라고 표시한 사례는 없다. 물론 ‘遼陽’이라는 표현이 고구려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인 사례는 적지 않게 보인다. 「泉男產墓誌銘」에서 遼陽은 고구려의 代稱으로 사용되었고, 「高乙德墓誌銘」에서는 주몽을 遼陽의 正統이라고 표현했다. 唐의 고구려 침공을 遼陽에서의 戰役으로 표현한 사례도 적지 않다. 遼陽人이라는 표현이 고구려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고구려 출신임을 가리킨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唐代 官人의 묘지명에서 遼東(襄平)을 연고로 한 인물들이 모두 고구려계 인물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묘주, 묘주 가문의 출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대의 官歷이다. 묘지명에 따르면, 증조부 李道는 後魏(北魏)의 渤海太守였고, 조부 李于는 隋에서 安東都護를 역임했다. 또 부친 弗卒은 唐에서 右武衛 冠軍大將軍, 南蘇州刺史를 지냈다고 한다. 증조부 이래로 묘주의 선대가 渤海郡, 安東, 南蘇州에서 지방관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묘주의 貫鄉이 ‘遼陽’이라는 사실과 아울러서 생각하면, 대대로 遼西, 遼東 일대에 연고를 두고 활동했던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증조부 이래로 北魏, 隋, 唐에서 관직을 역임한 사실을 전할 뿐, 고구려에서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王連龍·黃志明은 李仁晦의 출신과 관련하여 증조부인 李道라는 인물에 주목하였다. 북위 초 拓跋紹가 부왕을 시해하고, 拓跋嗣를 위협할 때, 그를 도왔던 李道가 李仁晦의 증조부와 동일인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당시 平城에는 海東에서 온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는데, 李道와 함께 활동했던 王洛兒가 낙랑에서 이주해 온 왕씨의 후예이고, 李道 역시 三燕에 의하여 遼西 일대로 옮겨진 고구려인의 후손이라고 추정했다.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王連龍·黃志明의 논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아직 李道를 고구려 출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특히 李仁晦는 683년 무렵에 태어났는데, 그 증조부가 北魏 초인 409년에 사망한 李道와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09년 사망한 李道の 아들(于), 손자(弗卒)가 隋, 唐에서 활동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仁晦 가문이 고구려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조부 李于가 ‘安東都護’를, 부친 李弗卒이 ‘南蘇州刺史’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安東都護府는 고구려가 멸

망한 후에 그 故地를 지배하기 위해 唐이 처음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于가 隋에서 安東都護를 역임했다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王連龍·黃志明 의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安西都護府도 唐 太宗 이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지만, 唐代 묘지명 자료에서는 隋에서 ‘安西都護’를 역임했다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安東都護의 사례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이다. 실제 隋에서 安東都護를 임명한 일이 있었거나, 혹은 唐의 安東都護와 상통하는 성격의 관직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王連龍·黃志明은 隋 煬帝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武厲邏를 함락시키고 遼東郡 등을 설치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파악했다.

李仁晦의 부친인 李弗卒은 南蘇州의 刺史를 지냈다. 南蘇州는 고구려 당시의 南蘇城으로 道史(處閭近支)가 파견되는 성이었다. 唐은 고구려 멸망 후 安東도호부 아래 소속 州의 하나로 南蘇州를 설치했다. 李弗卒은 府州의 장관으로 唐의 고구려 고지 지배에 직접 참여했던 것이다. 王連龍·黃志明은 그가 僭渠, 有功者로서 唐의 羈縻府州 지배에 참여한 사례로 이해했다. 李弗卒이 南蘇州 刺史에 임명될 수 있었던 배경도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료를 통해 遼西, 遼東 일대의 世族이었던 李仁晦 가문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얻게 되었다. 가문은 唐의 고구려 故地 지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묘지명에서 武官으로서 묘주의 자질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나, 선대의 官歷을 통해 보면, 唐의 고구려 침공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王連龍·黃志明의 논의와 같이 李仁晦 가문을 직접적으로 고구려 출신이라고 파악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李仁晦墓誌銘」의 판독과 역주,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 결과는 근간하는 학술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李仁晦墓誌銘」

- 묘주 : 李仁晦, 향년 48세(683~730)¹⁾
- 묘주 관력 : 幽州 清化府 折衝, 大同軍 副使
- 묘주 선대 : 증조부 李道(後魏 渤海太守). 조부 李于(隋 安東都護), 부 李弗卒(唐 右武衛 冠軍大將軍, 南蘇州刺史)
- 장지 : 劉村原(龍門之南, 伊川之北)에서 임시 장례를 치른 후 이장
- 찬자 : 이인회의 아들

(2022. 07. 11.)

1) 開元 18년(730) 3월에 임시로 장례를 치른 사실만 확인되므로, 730년 전에 사망했을 수 있음.